"기다려도 좋아요" 통맥축제 양동시장 '불야성'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2만여명 찾아 구6번로 중심 먹거리 부스·부대행사 테이블 부족에 일부 방문객 실랑이도

"날씨도 좋고 먹거리도 다양해 좋았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제3회 양동통맥축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 일 오후 5시께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 외곽 통

닭집 곳곳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서구가 주최하고 양동전통시장 활성화협의 체가 주관한 올해 행사는 '양동통맥(通脈), 너

랑 나랑 통했잖아'를 주제로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다. 이 기간 2만여명이 찾은 것으

이날가족·친구·연인 등과 함께 특별한 가을밤 을 보내기 위해 온 이들을 위해 통닭집에선 여느

때보다 바쁜손놀림으로 닭을 튀기고 포장했다. 모락모락 나는 연기 사이로 식욕을 돋우는 냄 새가 풍기는 통닭을 건네받은 시민들은 구6번 로로 향했다.

이곳 노상 한쪽에는 양동시장 일대에서 구매 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 250여개가 마

반대편에는 떡볶이와 순대, 튀김 등 분식류와 철판 오징어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부스 가 줄지어 있었다.

'대기 행렬'은 이곳 부스 대부분에서도 이어 졌는데, 한 사람당 최대 4잔까지 판매하는 '1천 원 맥주' 앞은 시장 안팎을 통틀어 기다리는 이 들이 가장 많았다.



지난 1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 내 구6번로가 양동통맥축제 마지막 날을 맞아 찾아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가족과 함께 방문했다는 장모(31)씨는 "바깥 판대를 활용하거나 행사장 바깥의 광주천까지 의 통닭집에서 사려면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해 이동하기도 했다. 서 부스로 왔는데, 여기서도 구매까지 30분이 몸싸움까진 벌어지지 않았지만, 자리를 두고

씬좋았을 것같다"고말했다.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다. 자리를 잡지 못해 가판대에 서서 음식을 먹던 이모(53)씨는 "날씨가 춥진 않을까 걱정했는 데, 자리를 찾다 보니 되려 땀이 났다"며 "음식 에 신경 쓴 만큼 먹을 곳도 좀 덕 넉넉했다면 훨

먹거리 부스 외에도 복개상가 부근에 설치

된 주무대와 건어물 사거리 일원에선 다양 한 부대행사가 열려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건어물 사거리에서 펼쳐진 '랜덤플레이 댄 스' 무대에는 근처에서 맥주를 마시던 이들이 아는 노래가 나오면 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김용목 양동전통시장 협의체 위원장은 오후 7시에 진행된 폐막식에서 "앞으로도 정이 넘치 는 양동전통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연상기자

광주 홍복학원, 재정기여자 2차 공모

오늘부터 내달 2일까지 접수

사학비리로 10년째 임시이사 체제가 지속되 고 있는 학교법인 홍복학원(광주 대광여고·서 진여고)이 재정기여자 2차 공모에 나섰다.

2일 광주시교육청과 홍복학원에 따르면 공모 대상은 교육적 인식과 재정적 투자 능력을 갖추 고 있는 시민으로, 3일부터 12월2일까지 대광여 고 행정실에 공모 참가 신청서·홍복학원 정상 화 추진 계획서·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법인 홍복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오 는 12월4일 서류·발표심사를 거쳐 재정기여자 를 선정하고, 다음 날인 5일 대광여고와 서진여 고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홍복학원은 지난 8-9월 재정기여자 1차 공모・ 재공모를 추진했으나 접수자가 없었다.

앞서 홍복학원은 지난달 27일 시의회 교육문 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재정기여자 모집을 통 한 홍복학원 정상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

걸렸다"며 "기다리는 동안 사뒀던 맥주의 김이

기다림 끝에 구매를 마친 이들은 식사를 위해

테이블을 찾아 나섰지만, 대부분 이미 차 있어

곧바로 자리에 앉아 먹거리를 나누는 이들은 찾

때문에 일부 방문객들은 문을 닫은 가게의 가

다빠져버렸다"고웃어보였다.

아보기 어려웠다.

토론회에서는 재정기여 모집 부진 원인과 해 결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참석 자들은 학교 부지 내 사유지 등은 취약점이지 만, 법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인 만큼 2 차 공모에 참여하는 재정 기여 의향자를 대상으 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라는 의견이 제기

자세한 내용은 학교법인 홍복학원 정상화 추 진위원회(이용안 법인실장 062-611-4581~2), 학 교 누리집(대광여고 http://daegwang.gen.hs.k r, 서진여고 http://seojin.gen.h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옥기자

광주 고려인 정착·자립 지원 '제도화'

윤혜영 광산구의원 조례 발의·통과

광주 광산구가 고려인 주민들의 정착과 자립 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윤혜영(사진) 의원 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안'이 지난달 30일 광산구의회 제300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구청장이 고려인 주민의 정착 현황과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고려인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 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 방지 및 인권 교육·홍보 ▲문화·체육 행 사 ▲취업·창업 지원 ▲거주지 환경 개선 등



고려인은 구한말과 일제강 점기 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 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 으로 이주한 사람과 그 후손 을 의미하며, 현재 광산구에 는 7천여명의 등록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려인마을은 지난달 19일 열린 '제13회 고려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고려인들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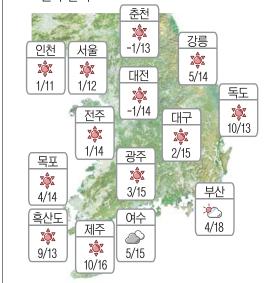
윤혜영 의원은 "고려인은 항일 독립운동 정 주요 내용은 ▲한국어 및 정착 적응 교육 ▲ 신을 이어받은 동포임에도 지원과 예우는 여전 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들을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옥근기자

◈ 해뜸 06:56 해짐 17:36 → 달뜸 15:58 달짐 03:53

●광주 · 전남 날씨

광주	맑음	3/15	장성	맑음	1/15
목포	맑음	4/14	보성	구름많음	1/14
여수	구름많음	5/15	함평	구름조금	3/14
나주	구름조금	2/14	순천	구름많음	2/16
완도	구름많음	5/16	영광	맑음	2/13
구례	맑음	1/16	진도	구름많음	6/14
강진	구름많음	4/16	흑산도	맑음	9/13
해남	구름많음	3/15	고흥	구름많음	2/17
광양	구름많음	3/16	담양	맑음	1/15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1.0-3.0	0.5-1.5	
	먼바다(북)	1.5-3.5	1.0-2.0	
남부	먼바다(남)	1.5-3.5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0.5-2.0	0.5-1.0	
	먼바다(동)	0.5-2.0	0.5-1.5	
	먼바다(서)	1.5-3.5	0.5-1.5	

●물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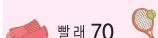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Рπ	12:11	05:20	여수 -	07:10	00:55	녹동	07:52	01:55
+ ±	十至	:	17:43		19:28	13:08		20:07	14:12

●생활정보지수



제차 70

세차하기 좋은날 감기 조심해요



₹ 운동 60 운동 후 체온 유의 실외건조 좋아요

●주간 날씨

. — — .		
4일(화)	5일(수)	6일(목)
* \$\(\frac{1}{2}\)	(8/20)	* \$\(\frac{1}{2}\)
맑음	구름많음	맑음
7일(금)	8일(토)	9일(일)
(10/21)	(13/20)	(13/19)
구름조금	구름많음	구름많음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통시장이 살아야 계약경제가 일어남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 지리산의 넉넉함을 닮은 인정 가득한 곳

73115021175

⊙ 장이 서는 날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위치: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작은길 20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

후원: 사연을 구려

+

광고문의 : 062)650-2099